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86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10.

발 의 자 : 김선민 · 김준형 · 조 국
이해민 · 신장식 · 김재원
장종태 · 서왕진 · 김원이
박상혁 · 김남희 · 강경숙
정태호 · 이용우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, 이러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음.

특히,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의사-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,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따라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·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87조의2).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7조의2제1항 중 “제12조제3항을 위반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

2.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

③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제2호의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형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8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제2호의 공익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87조의2(벌칙) ① <u>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,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87조의2(벌칙) ①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-----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.</p> <p><u>1.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</u></p> <p><u>2.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제2호의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.</u></p>